

## 오륙도 칼럼



김 형 석

가정과 사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뿌리요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말과 질서와 용기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물질 등에 대한 소유욕이 팽배해진 속에서 나날 할 것 없이 경쟁하듯 아집과 독선을 내세우고 겉멋하면 버럭 화부터 내며,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블랙을 현상'에 빠져든 탓이다.

이는 가정교육의 실패와 학교의 전인교육의 가치관 추락, 사회가강

의 해이 등을 불러들였다.

얼마전까지 '멘탈(정신력) 붕괴'의 준말인 '멘붕'이란 신조어가 회자되었다. 필자는 이를 '평상심의 추락'으로 바꿔 표현한다. 무릇 붕괴나 추락은 다시 노력하면 재기의 날개를 달고 비상 가능하다. 일상 생활에서 얼른 버려야 할 것들이 여태껏 버티고 있어 안타깝다.

#1>답표 전 한 대학가의 인도에 서었다. 고3쯤 된 녀석이 저만치 앞서가는 세 친구 뒤통수에 대고 "×새×들, 같이 가!"라고 소리쳤고, 한 녀석이 뒤돌아보고 "×병×말 하네!"라고 대꾸했다.

여차분석에 따르면, 초등 3년생부터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의 카톡(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통해 "××새끼...×탈...", "...개×새×랑", "×말××야, 똥질래" 따위의 어른 뻘질 정도의 천박하기 짝이 없는 욕설을 마구 주고 받는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다. 너

무 낭패스럽지 않은가?

'입은 사람을 해치는 도끼이고 (口是傷人 舌 割 舌 刀 언시할살도)'이라고 《명심보감》은 가르치고 있다.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경구를 새기고 깨쳐 고운 말을 쓰게끔 지도해야 한다.

### 공문박질치는 우리말

#2>기초질서도 오래전 추락해 상처부성이다. 어느 대학가 주변 인도는 오후만 되면 음식점과 노래방, 소림동, 헤어숍 따위의 리플렛에다 빈 과자봉지와 휴지와 오물, 주변 상점들에서 내놓은 쓰레기봉투, 심지어 안마시술소와 일수돈대출, 성인오락실을 일리는 명함판 홍보물까지 뒤범벅되어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심하다.

특히 지하철역 계단이나 바로 밖의 인도를 비롯, 시내 전반에 걸쳐 보행자 경우 10명 중 8~9명이 우

측통행을 무시하고 왼쪽으로 오간다. 행정 당국에서 '우측통행'을 시행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 뻔뻔하고 부끄럽지 않은가?

간선도로를 제외한 안길 경우 일부 택시나 자가용 승용차는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선을 무시하고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횡단보도까지 잡아먹은 뒤 그냥 내뺐다.

어떤 택시는 승객이 길 반대쪽에서 손짓을 하면 단번에 두 줄 황색 선(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절박선)을 위반,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손짓으로 서게 하고 승객을 태운다.

더구나 횡단보도는 차량의 횡포로 '사람위주 안전기능'을 뺏겼다. 바로 앞의 정지선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얹체택시 경우 횡단보도 위에 차를 세운 채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준다.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

이 같은 일련의 무질서와 법법행위들이 도시 전반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즉시 처리·지도·단속하는 열성의 손길을 볼 수 없다.

### 질서·배려·용기 실종 위기

#3>지하철 전동차 내 질서·배려·용기도 실종상태다. 열 사람을 무시한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신발을 닦게 하거나, 경로석에 중·고·대학생이나 젊은 남녀가 예사로 앉거나, 10~40대들이 나이 많은 어른을 보고도 자리양보를 외면하거나, 하물며 대학생 또래 커플이 앉아 사람표시를 하거나...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이럴 때는 어른들이 용기를 내 세워 당장 타일러야 하는데, 봉변당한다며 눈을 감고 자는 척한다. 만약 녀석이 "왜 간섭하느냐"고 대들면 옆이나 앞, 이 쪽 저 쪽에서 어른들이 물려와 "이 녀석, 어디 버트장머리 없이 대들어!" 하고 호통을 쳐야만 이런 일이 없어지고 어른을 무시위하며 질서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용기부족으로 방관상태다.

아름다운 말과 튼실한 질서, 울

곧은 용기의 생활화는 평상심을 지켜나가고도 하는 활력소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하찮게 여김으로써 '사회적 환부'의 중증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삶이냐》에서 '사회와 개인은 상호보완의 관계'라며 '병든 사회의 구제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늦지 않았다. 이제 우리 스스로 훼손·붕괴시킨 말과 질서와 용기를 우리가 나서서 치유시켜야 할 때다. 그리하여 평상심 복원을 구현하자.

지자체는 시대정신에 맞춰 사고와 인식의 틀을 확 바꾸고 과감한 쇄신을 통해 변화를 체질화시켜야 한다. 이로써 시민안전망 구축과 운영체계를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 실질적·영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의 쓴소리 경청과 시민배려의 저변을 넓히고 평상심의 생활화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시인·언론인

## 신선대

<200>



## 선용의 1000자 지혜

## 작각

사람은 가끔 작각에 빠져 헤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작각이 일시적이면 예요로 봐줄 수 있지만 늘 작각 속에 빠져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별나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꼬투리를 잡아 견디다 못한 며느리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마음이 약해 차마 자기 목을 해칠 수가 없었다.

"진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나무라시겠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지깥이를 들고 때려죽이겠다고 달려왔다. 며느리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나무 밑에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 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쳐있었다.

때마침, 한 여자 종이 물을 거르려 향아리를 이고 연못가로 왔다가 며느리의 그림자를 보고 자기 것이라 착각했다.

"오, 내 얼굴이 물에 비쳐있네. 오늘 보니 누구보다 아름답군. 그런데 이런 내가 어찌 남의 집에서

천한 일만 하겠어? 주인은 정말 사람 볼 줄 몰라! 예라, 내가 계속 이런 짓을 하나 보라!"

여자종은 향아리를 던져버리고 돌아가 주인에게 따졌다.

"내가 모자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얼굴도 마님의 따님보다 예쁘죠, 못하는게 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천한 일만 팔라서 시키죠?"

그녀가 주인이 생각했다.

"저 아이가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저러지?"

주인은 별로 화도 내지 않고 다른 향아리를 집어 주었다. 여자종은 주인이 무서워 연못으로 다시 갔다.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아 향아리를 박살내어 버리고 앉아서 신세타령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며느리는 참다 못해 큰소리로 웃고 말았다. 여자 종은 웃음소리에 놀라 위를 보고 그제서야 물 위에 비친 그림자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이 자신을 알기란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을 돌아보고 분수를 지킨다면, 그래도 남에게서 욕을 먹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번역문화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인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쓰레기수거차량 악취 심해

영남제분 앞 고가다리 및 공용주차장에 몇 개월 전부터는 00물산이라는 쓰레기수거업체 차량들이 12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다. 수거차량에는 음식물쓰레기통까지 적재하고 있어 악취가 심해 주민들 고통이 크다.

쓰레기수거차량이 주차장에서 이동을 하면 그 자리에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하고 일을 끝내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승용차를 빼고 수거차

량을 주차시키고 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다보니 주민들이 주차하기가 매우 어려워 도로 주변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알기로는 쓰레기수거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고 들었다. 전용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00산업 관계자들을 구청에서 묵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권한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 민원 단속권한이 있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 단속지도 부탁드린다. 참시고려 반대편 영남제분 쪽 고가다리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구 캐릭터 제작 권장

구 캐릭터를 활용하고자고 건의하신 대원5동 유영희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미와 밝음이는 구화 목련꽃과 빛을 주제로 의인화한 커피 캐릭터로, 남구의 홍보대사로서 행정기관을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2008년 2월 개발되었습니다.

황령산 터널 입구 쪽에 설치된 희망미와 밝음이는 조형물은 2012년 4월

대원동에 위치한 U-평화공원에서 개최되었던 불꽃나들이 축제시 축제 조형물로 제작되어 축제 종료 후 재활용을 위해 이전 설치한 것이지 별도의 예산으로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남구의 주요관문에 남구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지는 귀하의 의견에 적극 동의는 하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하듯 우리 구의 재정형편도 그리 넉넉지는 못한 실정에서 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불꽃나들이축제와 같이 대규모 행사시 남구 캐릭터 제작을 권장하여 재활용하는 한편,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귀하의 의견을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상희>

#### 공사자재 야적 시정 요구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감독 철저를 기해 달라고 의견을 주신 대원3동 최창섭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지하차도 공사는 기존 도로 하부에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각종 장비 작업으로 인하여 차로 침몰(혹시)이 불가피한 공사입니다. 차로 침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로 축소에 따른 공사 중 불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자의詩

#### 은혜

하늘 보고 누우신지 한 해 지나 또 한 해

씁서드린 음식물도 마다않던 착하신 이

기적귀 갈 때마다 곤혹감에 소녀 같고

치매 앞엔 그 와중에 이 은혜 어쩌나

아... 어머니 날아주신 그 은혜 이전 어찌 하오리까



윤남숙 (문현2동)

밀으로 유도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남(대원3동)**

#### 별초할 때 별 조심해야

추석을 앞두고 별초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가끔씩 별초할 때 벌로 인해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있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대개 별초할 때쯤이면 벌들이 연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여서 별초하다가 자칫 벌집에 손을 대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여 대단히 유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자칫 벌들이 뛰쳐나와 인체에 벌에 쏘여 병원에 가거나 가는 도중 사망하기도 해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벌집을 절대 건드리지 말고 밝은 색 계통의 옷 입기를 삼가며 털이 있는 재질의 옷도 입지 말고 또한

향수가 진하게 나거나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냄새를 심하게 드러내는 물질은 피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자칫 조상의 산소를 잘 간직하고 돌보려 갔다가 벌에 쏘이는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즐거운 별초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우향회(문현3동)

#### ■ 나의 생각

## 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

고즈넉한 가을이 오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각양각색의 축제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 남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U-평화대축전이 열린다고 한다. 올해는 예산과 규모면에서 활동하다고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이와 함께 지역의 한 복지관과 대학교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축제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내달 17일 '깊이 가는 음악회 함께 하는 이야기' 행사를 연다.

주요 순서를 알아보면 남구는 인기타양상블림이 나와 '파수원길'과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을 통해 흥을 돋우게 된다. 이어서 유명중 색소폰 중창단이 무대에 올라 라파노바, 베사메무초 등을 들려주며 인코리아우스오케스트라는 웅장한 하모니로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하게 된다.

행사 진행 중에는 음악회를 모래로 표현하는 샌드아트가 선별 예정이며 코러스 합창단과 참가자들이 함께 부르는 벨라판타지나 순서도 마련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음악회는 작지만 알차고 주민 스스로가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면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공연 예술 기획자와 문화센터장, 음악 전공자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행사의 품격을 높인다.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동대인 CNS는 음악회 준비과정을 영상에 담고 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은 축제가 종전 관 주도 또는 어느 특정집단이 이끌어 가는 잔치가 아니라

주민이 만드는 주민참여형 축제라는 생각을 양겨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사실 복지관은 음악회가 열린 첫 해부터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의 시작과 끝을 맡는 형태의 축제의 틀을 만들어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다.

동명대학교도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마련했다. 아름다운 재단 '나눔의 연주가 1호' 선정 등으로 유명한 윤효간(작편곡가 겸 피아니스트, 아코디언리스트, 싱어) 특별초청 콘서트가 26일 오후 3시부터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동명대학교·총동문화 주최, 부산시민회관 등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문화공연 윤효간 피아노콘서트 '피아노와 이별'에는 실동근 총장이 게스트로 특별출연해 음악회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음악회는 분명 남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문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데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규모가 크고 작긴 간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즐기는 축제가 가장 이상적인 축제일 것이다.

그 한가운데 작은 음악회와 피아노 콘서트가 있다.

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어느날 저녁 복지관 뜰이나 학교 교정을 가족과 함께 찾아 낭만과 여유를 즐기길 바란다.

윤선자 기자

## 알기 쉬운 부동산 상식 코너

##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위원의 생방이 지불합니다.

※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시 조례 제2조, 별표1)

구분	거래금액	오늘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4	
임대차 등	6억원 이상	1천분의 9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천분의 3	
	3억원 이상	1천분의 8	

※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시행규칙 제20조)

구분	상한율	한도액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1천분의 90내에서 중개위원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법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100)

♣위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70)

### 201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부과대상: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  
-시설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영업용 건물
- 자동차: 경유연료 사용 자동차
- 부과기간: 2012. 1. 1~6. 30
- 납부기간: 2012. 9. 16~10.2 (미납부시 가산금 5% 부과)
- 사용용도: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 납부방법: 시중은행 및 인터넷(etax, busan.go.kr), 가상계좌
- 문의: 607-4384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는 10월 1일은 제64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4344주년 개천절, 10월 9일은 566돌 한글날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게양 시기: 10. 1(월), 10. 3(수), 10. 9(화) 각각 07:00~18:00까지
- 게양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국기 구입: 구·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